

# 왕강(王剛) 장편소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英格力士)》 小考

金鍾碩\*

## <목 차>

1. 들어가며
2. 문혁 시기 소년의 성장 역정: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 대한 성장소설적 독법
- 2.1. 차별화된 문혁 서사: 창작 의도와 작가의식
- 2.2.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 대한 성장소설적 독법
3. 문혁 시기 사회 현실과 지식인 비판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중국 당대 문단에서 왕강(王剛)<sup>1)</sup>은 ‘신장(新疆) 작가’, ‘신장 콤플렉스’라는 독특한 수식어가 붙는 작가이다. 그는 중국의 정치적·문화적 변방에 속하는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mattew1004@korea.ac.kr)

1) 왕강(王剛, 1960~ ): 소설가. 중국 작가협회 회원. 지식인 가정 출신으로,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스토히쯔(石河子) 시에서 성장하였다. 1976년 입대하였고, 신장 난장군구(新疆南疆軍區) 문공단 단원, 우루무치 건축 가스 충전소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위원회 간부, 《녹주(綠洲)》 잡지 편집 등을 역임하였다. 1989년 시베이 대학(西北大學) 중문과를 졸업하고 베이징 사범대학과 루쉰 문학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잡지 《당대》에 증편소설 《차가운 햇살(冰涼的陽光)》을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이후 단편소설 <보거다의 동화(博格達童話)>(1987), <붉은 손(紅手)>(1989), <가을 남자(秋天的男人)>(1989), <머나먼 햇살(遙遠的陽光)>(1989)과 장편소설 《달의 뒷면(月亮背面)》(1996), 《포브스의 독설(福布斯咒語)》(2009) 등을 발표하면서 주목받는 작가로 떠올랐다. 《갑방을방(甲方乙方)》, 《천하무적(天下無賊)》 등 영화와 TV드라마의 시나리오 작가로도 한때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나고 자란 특수한 경력을 지닌 한족 작가이며, 베이징에 정착한 이후에도 성장기 '신장'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애정과 기억을 원동력으로 삼아 작품 세계를 구축해 간다는 점에서 중국 당대 문단에서 독특함을 드러낸다.

왕강이 2004년 발표한 장편소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英格力士)》는 작가 '왕강'이라는 이름을 널리 각인시킨 작품이다. 1987년 문단 데뷔 이후, 1996년 장편소설 《달의 뒷면(月亮背面)》을 발표하며 잠시 문단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생계를 위해 8년간 소설가로서의 삶을 잠시 내려놓는다. 이 시기 각종 상업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문단 외부에서 경험한 갖가지 삶의 좌절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순문학에 대한 갈증과 작가로 성장하는 자양분을 획득한다. 이후 8년의 구상 과정과 2년간의 집필을 거쳐 44세에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를 발표한다. 순문학으로 문단에 돌아온 복귀작이자, 문단의 재조명을 받는 계기가 된 작품이기에, 현재까지 작가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을 갖는 소설<sup>2)</sup>인 것이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작중 주인공이자 화자인 류아이(劉愛)의 문혁 시기 신장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의 소년기 성장 경험과 관찰을 기반으로, 성장 주체의 외부세계와 자아에 대한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서술하며, 류아이의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진지함을 추구해가는 성장기"<sup>3)</sup>를 그린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유형에 속한다.

이 작품은 《당대(當代)》 잡지 2004년 4호에 발표된 뒤, 9월에 소설집으로 출판되었다. 12월에는 인민문학출판사와 《당대》 잡지사가 공동 주관한 '올해의 장편소설상' 독자상과 전문가상을 석권하였고, 2006년에는 타이완 《중국 시보(中國時報)》 '10대 좋은 도서'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마오둔 문학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우수한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 2008년 펑권출판사에서 해외 판권을 구매한 후, 2009년 영문판 출판을

2) 高方、張蓓, <我最重要的作品還是寫新疆的> 《新疆日報》 2013.1.17.

3) 王強,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김양수 옮김, 파주: 푸른숲, 2006), 뒷표지.

필두로 프랑스어판, 한국어판 등 10여 개국 언어로 번역 출판된 바 있다.

특히 ‘올해의 장편소설상’ 평가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진정한 성장소설로, 최초로 경험자의 신분으로 특수한 시대의 중학 생활과 심리적 경험을 이야기한 소설”<sup>4)</sup>, “우아한 문화에 대한 유혹적이지도 최고의 기록으로, ‘잉글리쉬(英格力士)’가 상징하는 모든 것은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이 충만한 완전히 다른 인문적 추구”<sup>5)</sup>라 평가하며, 높은 작품성과 그 의의를 밝힌 바 있다. 소설가 모언(莫言) 역시 과격하고 분노적 색채가 강했던 전작들에 비해 따뜻함과 애잔함으로 충만하며, “그 자신에 대한 초월이자, 같은 제재를 취한 소설들에 대한 새로운 진전”<sup>6)</sup>이라 평가한 바 있다. 이렇듯 성장소설의 범주에 속한 소설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동시에 주류 문단, 더 나아가 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인정받은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높은 작품성과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작가 왕강 및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성과가 활발하지는 않다.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정보 검색 CNKI에 검색하면, 대략 40여 편의 검색 결과가 나오지만, 그 중 15편 내외가 인터뷰와 보도 등 소개적 성격의 글이다. 논문 자료는 텍스트 내용 분석, 성장 소설적 특성 분석, 인물 형상 분석,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를 활용한 1인칭 서사적 특징, ‘시화’(詩化), ‘희화화’, ‘풍자’ 등의 예술적 기교 등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출생 작가들의 성장소설의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 한 장을 할애해 ‘동일시 대상이 등장하는 성장소설’의 특징을 분석한 김봉연의 논문<sup>7)</sup> 외에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 소설이

4) 孟繁華, <傷痕的青春 殘酷的詩意: 評王剛的小說創作>(《南方文壇》 2006年 01期, 2006), 82쪽.

5) 張頤武, <中國夢的隱秘斷片>, 《文匯報》 2004.10.25.

6) 王剛, <我是寫小說的王剛>, 中國網.  
(<http://www.china.com.cn/chinese/RS/764433.htm>) (검색일: 2019.8.1.)

7) 김봉연, <1990년대 이후 중국 당대 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결핍과 그 서사적 대응방식>(《비교문화연구》 47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갖는 성장 소설적 성격 및 문혁 시기를 묘사한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왕강은 기존의 역사와 사회에 초점을 맞춘 '거시 서사'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과 '일상'에 주목하는 서술적 특징을 드러낸다. 따라서 우선, 작가의 작품 창작 의도 및 작가의식과 관련된 글과 인터뷰 자료를 살피고, 1960년에 태어난 왕강이 전형적인 '60년대 출생 작가군'에 속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과 앞 세대 작가들과의 차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의 성장소설과 '60년대 출생 작가군'의 성장 서사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장소설의 서사 패턴과 이야기적 특징 등을 바탕으로,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 드러난 작중 주인공 '나'의 미숙한 주체에서 성숙한 주체로 나아가는 정신적 성장의 궤적을 성장의 조력자 왕야권(王亞軍)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나'의 시선과 관찰을 통한 문혁 사회 현실과 '내'가 접한 지식인 형상들의 정신적 면모를 '인성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가 갖는 의의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중국 성장소설의 가능성에 대한 조망이 가능해 질 것이다.

## 2. 문혁 시기 소년의 성장 역정:

###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 대한 성장소설적 독법

#### 1. 차별화된 문혁 서사: 창작 의도와 작가의식

1996년 장편소설 《달의 뒷면》을 통해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왕강은 이후 베이징에서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갖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현실적 좌절을 누차 경험한다. 이러한 삶의 경험의 누적과 문학과 글쓰기, 그리고 작가에 대한

작가의식이 확립된 이후, 2004년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를 발표해 문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재차 받으며 성공적으로 문단에 복귀한다.

그의 작가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90년대 초 위탁 대학원생으로 석사 졸업한 이후, “베이징에서 생활하지만 베이징 호적이 없는 첫 세대”<sup>8)</sup>였고, 개혁개방 이후 고도로 상업화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글쓰기와 상관없는 영역을 상당 기간 전전하였다. 그 자신이 밝혔듯, 왕강이 걸던 문학 여정은 문단의 명성 및 부·명예의 획득과는 거리가 먼 좌절로 점철된 험난한 길이었다. 자신의 문학과 글쓰기 방식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업적 글쓰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문학과 글쓰기 본연의 의미를 깨닫는다. 거듭되는 좌절 속에서 실망하고 고뇌할 때, 문학은 비로소 작가를 위로하고 세계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다가오며, 글쓰기가 작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동행하는 방식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sup>9)</sup>

이에 따라 작가는 현실 사회에서 끊임없이 주변화 되는 존재이며, 주변화된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각도가 작가에게는 필수불가결하고<sup>10)</sup>, “소설의 기본적 자질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외부 세계와 교류하는 데” 있으며, “작가가 표현한 것이 독자의 공감을 일으킬 때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이 완성된다”<sup>11)</sup>는 작가의식을 확립하게 된다.

왕강은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를 쓰는 과정에서 이 소설의 스토리가 작가 자신에게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상업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요소들이 없었기에 독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관심과 공감을 갖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소설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을 위로하고 자신의 기억을 달래는, 진실 반 거짓 반의 회고록이라는 신념을 끊임 없이 심화하고”, “가장 투박한 방식으로, 늙은 소가 낡은 수레를 끌 듯 천천히

8) 王剛, 앞의 글, 中國網.

9) 王剛, 위의 글.

10) <王剛: 我抓住一切機會寫自己的惡 也未必能找到一條生路>, 搜狐文化, 2016.2.15. (<http://cul.sohu.com/20160215/n437407345.shtml>) (검색일: 2019.8.1.)

11) 王剛, 앞의 글, 中國網.

자신의 일을 되풀이하고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sup>12)</sup> 집필을 해나갔다.

왕강은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를 문학적인 ‘자서전’ 내지 자전적 소설이라 그 특징을 규정한다. 어떤 작품이라도 자전적인 성격이 담겨있고, 성장과정 중의 경험과 기억, 인상 등이 작가의 감정과 생명 속에 녹아들면서 내면의 언어를 이루기 때문이다.<sup>13)</sup> 따라서 이 작품은 60년대에 출생한 작가의 문혁에 대한 ‘회고’와 ‘기억’을 담은 자아 찾기의 여정을 다룬 소설이자 작가의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험을 토대로 한 독특한 기억의 양상을 드러낸다.

저는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서 문화대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선한 사람에게는 영혼의 안식을 빌었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보고자 했습니다. 이 소설은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쓴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 이 사건을 주로 저보다 뒷세대의 작가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세대의 누군가가 문화대혁명을 다루면서 여전히 잔혹함과 피비린내와 그 더러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만으로 독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성찰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sup>14)</sup>

세대상으로 구분하면, 왕강은 ‘1960년대 출생 작가군’에 속하는 작가이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쓴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에는 기존 문혁 서사에 대한 반성과 극복적 사유가 담겨 있다. 이는 기존의 상흔문학으로 대표되는 문혁 서사에서 문혁의 상흔을 감상적(感傷的) 토로로 극대화시키고, 역사(‘문혁/4인방’)에 모든 죄악을 귀결시키면서 모든 이가 무고한 피해자임을 강조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메우고, 고난을 토로하는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과 신념을 드러내는<sup>15)</sup>, ‘국가주의적’ 한계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12) 王剛, 위의 글.

13) 王剛, 위의 글.

14) 왕강, <한국어판을 펴내며>(《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 김양수 옮김, 푸른숲, 2006), 5~6쪽.

15) 陳曉明, 《表意的焦慮》(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2), 10-11, 76쪽 참조.

비롯되었다.

특히 문혁의 직접적인 참여자와 경험자를 자임하고, 문혁의 잔혹성과 폭력성, 그리고 트라우마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강조하는<sup>16)</sup> 윗세대의 기존 문혁 서사에 대한 작가의 강한 반감이 묻어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흑백 논리로만 구분 짓고 서술하는 패턴만을 보여줌으로써, 문혁의 비극이 일부 악인들과 선인들의 이야기라는 단순한 묘사와 서술로만 확대 재생산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문혁에 대한 단순한 봉합과 장렬한 단면만을 강조하는 단순한 서사는 문혁의 복잡한 면모와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아우를 수 없으며, 이는 '지식인으로서 자기 성찰' 및 과거에 대한 반성 부족과 직결된다는 작가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이 작품은 비극적 정서를 극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의 초점이 역사나 사회가 아닌 개인에 맞추어져 있다.<sup>17)</sup> 왕강은 “온화하면서도 함축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문혁 시기에 경험했던 복잡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sup>18)</sup>는 소박한 글쓰기의 욕망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새로운 서술 방식은 독자 대중과 주류 문단의 환영을 받았다.

왕강은 '젊은 세대', '새로운 방식'이라는 말로 앞 세대와의 세대적 차별성과 글쓰기 방식의 차이를 강조한다. 1960년에 출생해 1983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왕강은 '8~90년대에 문단에 진입한 작가군'<sup>19)</sup>인 전형적인 '60년대 출생 작가군'에 속한다. 이 작가군은 문혁 시기에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며 성장하였다. 따라서 신중국 성립 즈음에 태어나 문혁 시기 '홍위병/지청'으로

16) 그 모든 잔인한 것들을 지나치게 언급하길 원치 않는다.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트라우마(상흔)적인 기억들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의해 너무 많이 쓰였고, 피해자(수난자)의 얼굴과 폭행 가해자의 얼굴이 이전의 문학에서 지나치게 마음껏 묘사되고 한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마치 중국의 비극이 좋은 사람은 너무 좋았고 나쁜 사람은 너무 나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묘사는 내 마음속에 반감을 일으켰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모차르트와 나의 공통된 우울(憂鬱)이 그 시대에 속하는 장렬한 옛일(지난 일)을 포용할 수 없다고 느꼈다. (王剛, <英文版自序>(《英格力士》, 北京: 作家出版社, 2016.)

17) 김양수, <옮긴이의 말>(왕강, 앞의 책), 509쪽.

18) 王剛, 앞의 글, 中國網.

19) 趙慧娟, <成長的異化與異化的成長: 60年代出生作家成長之路>(《小說評論》 2009年 第4期, 2009), 92쪽.

성장한 세대보다는 어린 세대이며, 홍위병 운동과 상산하향 운동 등 강렬한 시대적 경험과 집단기억, 정치 이데올로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하지만 문혁 시기에 “문혁의 전 과정을 목격하였고, 투쟁의 잔인함, 인성의 복잡함, 생명의 비천함의 증인”<sup>20)</sup>으로 성장한 세대이기에, 이들 역시 ‘문혁’에 대한 기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왕강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 세대는 “문혁의 잔재, 즉 문혁 중 남은 찌꺼기이며”, 자신들의 내면세계에 문혁의 강렬한 흔적이 남아 있는 세대<sup>21)</sup>이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또한 ‘문혁’ 시기의 특수한 역사경험에서 조력자 혹은 동일시의 대상을 찾지 못한 세대, 즉 가치체계의 붕괴, 무질서와 무사회의 현실과 과격 한 정치구호가 난무했던 시절에 방치된 아이들이었고, 상산하향의 고통이나 집단기억의 낙인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을 성장 주체에게 돌려줄 수 있었던 세대였다.<sup>22)</sup>

이러한 세대적 특성을 쉬후이(許暉)는 이 세대의 천성적인 거리감과 ‘구경꾼’이라는 단어로 규정한다. 문혁을 경험했지만 참여자는 될 수 없었고, 개혁 개방 이후 상업화를 추구하는 실리 사회의 도래에 따라 또 다른 소외를 경험하는 이른바 ‘긴 세대’로서의 특징<sup>23)</sup>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60년대 출생 작가군이 작가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가해자였건 피해자였건 어떤 형태로라도 ‘문혁’의 참여자였던 앞 세대 홍위병/지청 세대의 신시기 문혁 서사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억울함의 호소, 역사와 시대적 분위기와 죄악에 대한 고발과 비판, ‘지나간 세월에 후회 없다’(“青春無悔”)식의 자기 세대에 대한 관대함과 자기변명의 문혁 서사와의 차별성을 갖게 된 것이다.

주변화된 생존 경험에 따른 관찰자·방관자의 시선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이 가능해졌고, 특히 인도자/조력자 역할을 해야 했지만 시대

20) 趙慧娟, 위의 논문, 92쪽.

21) <王剛: 我抓住一切機會寫自己的惡 也未必能找到一條生路>, 搜狐文化, 2016.2.15.

22) 김봉연, 앞의 논문, 3~4쪽.

23) 許暉, 《“六十年代”氣質》(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1), 83쪽 참고.



현실에 의해 왜곡된 인성과 허위적 면모를 드러낸 부모 세대에 대한 반항과 살부(殺父) 의식에 입각한 부모 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이 글쓰기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작중 주인공들의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반항과 일탈 등 실패한 성장에 대한 묘사 혹은 '성장의 거부'와 소외를 드러낸 작품<sup>24)</sup>들이 60년대 출생 작가군의 문혁 서사의 공통된 흐름이 된다.

하지만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이러한 '성장의 거부'가 아닌 동일시의 대상을 찾고 다양한 성장 경험을 통해 성장한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면에서 60년대 출생 작가군의 문혁 서사와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차별화된 문혁 서사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2.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 대한 성장소설적 독법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어린이~청소년의 시선을 통해 문혁 시기 작중화자이자 주인공 류아이(劉愛)의 성장 역정을 묘사함으로써 앞 세대와는 다른 서사 양상과 경험을 펼쳐 보인다. 문혁 시기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경험한 디테일한 일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주인공 류아이 세대의 성장사를 펼쳐 보이는 과정에서, 소년 자신의 심리와 내면세계의 변화, 그리고 어른 세대 지식인 군상의 모습과 사회의 '악'과 '현실'의 발견을 그렸다.

사실 중국 현대대문학 작품에서 전형적인 의미의 성장소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신중국 성립 이후에는 '혁명'으로 상징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부단히 강조되었기에, 성장소설은 교사/인도자 등의 '계급'과 '혁명'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적 훈육을 통해 주인공이 혁명 후계자로 양성되는 천편일률적인 패턴을 보였다<sup>25)</sup>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 나의 잉글리쉬 보

24) 李敬澤, 《紙現場》(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85쪽.

25) 孟繁華, 앞의 논문, 82쪽; 장귀룡(張國龍)에 따르면, 당대 중국문학에서 성장소설은 이데올로기의 관여와 개조, 그리고 중서 문화의 콘텍스트의 차이로 인해 본질적으로 많은 변이를 일으켰고, '성장'은 성장하는 이의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젊은 공화국과 함께 성장하

이》는 미숙한 주인공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각성하고 ‘성장’함으로써 주체로 정립되는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국 당대의 기존 성장소설과는 다른 특징을 드러낸다.

‘자아 정체성의 탐색’이라는 소설의 본질을 성장기 소년의 성장과 결합시켜 파생된 장르가 ‘성장소설’이다. 성장소설은 소년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겪게 되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그리고 세계의 주체로서 정립되는 각성의 과정을 주로 담고 있는 작품들<sup>26)</sup>을 지칭한다. 따라서 주인공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적 특질을 지닌다.<sup>27)</sup> 이러한 성장소설의 특성은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를 분석하는데 있어 유효한 해석을 제공한다.

소설에서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주인공 류아이의 12~17세 시기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성장기에 해당한다. 성장기에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육체적·정신적인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도기적 면모가 드러난다. 이 시기에 개인의 인격 형성과 자아정체성의 탐색이 시작되며, 자아의식과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정립된다. 이에 따라 타인과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관찰과 인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독립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의 작중화자이자 주인공 ‘나’는 또래 학생들과는 다른 예민하고 감상적인 감수성의 소유자로, 자신이 성숙하고 생각이 복잡한 아이라 인식하는 조숙한 소년이다.

어린 시절의 우울함은 종종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심각하다./ 물론 우리의 우울함은 죽음이 아니고 탄생에 관한 것이다. 특히 나 같은 얼와쓰에게는. (……) 왜 자신의 출생지를 선택할 수 없는 거지? 나는 왜 신장의 우루무치 같은 곳에서 태어난 것일까? ……/ 나는 어려서부터 우루무치가 고독하거나

는 사명을 담당했다고 한다. 근현대에서 최근까지의 중국 ‘성장소설’의 흐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張國龍、張燕玲, <處於成長之中的中國“成長小說”> (《南方文壇》 2009年 04期, 2009), 42~45쪽을 참조할 것.

26) 한용환, 《소설학 사전》(서울: 고려원, 1992), 241쪽.

27)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서울: 박이정, 2002), 36쪽.

아니면 내가 고독한 아이라고 느꼈다.<sup>28)</sup>

소설의 도입부인 1장에 서술된 내용으로, 12살 소년 '나'의 정신적 곤혹감과 소설의 총체적 기조가 암시된다. '나'는 대도시, 문명과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 신장/우루무치에서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남들과는 다른 느낌과 정서, 즉 우울함과 괴로움, 그리고 정신적 고독감을 지닌다. '나'에게 있어 우루무치는 황량함과 광활함의 이미지만 있는 '정신적 황무지'와 다름없는 변방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4살 때 부모님의 고향인 대도시 난징(南京)을 방문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 신장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변화함과 문화적 충격을 받으며 대도시와 그곳이 상징하는 문명에 대한 동경이 생긴다.

'나'의 이러한 답답함과 심리적인 고독감은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받고 성장한 대도시 출신 엘리트 지식인 부모와는 다른 환경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태어났다는 박탈감과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문화'와 '교양'을 중요시하는 가정환경<sup>29)</sup> 때문이었다.

'나'는 희희낙락하며 아무 걱정 없는 또래들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문명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만리장성 안쪽 지역'("口裏")의 대표 도시인 난징,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과 중국보다 더욱 문명화된 미국 등 서양의 선진국에 대한 끝없는 상상과 동경을 한다. 이를 반영하듯 이런 지명들은 '나'의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또래 학생들과의 '다름'에 대한 인식, 중심/주변, 대도시·외국/우루무치 등의 '다름'과 '대비'에서 비롯된 내면의 동경과 갈등은 이후 '나'의 영어로 상징되는 문명에 대한 추구하고 정신적 성숙의 출발점이 된다.

28) 童年的憂鬱經常遠遠勝過於那些風燭殘年的老人。/ 我們想的當然不是死亡，而是出生，特別是像我這樣的兒娃子，……，我們為什麼不能選擇自己的出生地呢？我為什麼要出生在新疆烏魯木齊這樣的地方，(……)/ 我從小就感到烏魯木齊是孤獨的，或者說我是那兒孤獨的孩子。(王剛，《英格力士》(北京：作家出版社，2016)，4쪽. 이후 소설 내용을 인용할 경우 페이지만 기재하고자 한다.)

29) 나는 시쳇말로 '모던'한 아이였다. 엄마와 아빠는 유명한 건축가였고, 나는 그들의 자식이었다. 내 피에는 가난한 애들하고는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고, 그건 바로 문화 혹은 교양이라는 것이었다.(一般說來，我是一個文明的孩子，媽媽是建築師，爸爸是著名建築師，我是他們的後代，我的血液裏流著與一般的窮孩子不一樣的東西，那就是文化。) (40쪽)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의 시대적 배경인 문혁 시기는 ‘혁명’ 이데올로기가 극단적으로 강조되고, 지식에 대한 추구가 억압되던 지식무용론의 시대이자 문화적 불모의 시대였다. 모리스 마이스너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의 문화생활과 교육생활은 마치 어두운 반(反)계몽의 시대에 들어선 것”<sup>30)</sup> 같은 시기였다. 실제 작품에서도 학교 교육에 관한 묘사는 거의 계급교육과 혁명·집체의 강조로 드러나며, 대도시에서도 변변한 학습자료 하나 구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나’의 대도시와 문명에 대한 갈망은 신장 지역의 학교 교육에서 위구르어 교육에서 영어 교육으로의 전환<sup>31)</sup>이라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하이 출신 영어 교사 왕야권(王亞軍)의 부임을 통해 심화된다. ‘내’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과 왕야권과의 사제 간의 우정을 주요 줄거리로 삼아 ‘나’의 성장 서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그 속에는 ‘나’와 황취성(黃旭升), 쓰레기 리(李垃圾) 등 동급생들과의 우정, 사춘기로 진입하면서 겪는 신체적 성장에 따른 억압과 초조함, 아름다운 여교사 아지타이(阿吉泰)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갈망, 부모와의 갈등과 살부 의식 등 다양한 성장 과정의 경험과 에피소드, 그리고 성장의 계기들도 곳곳에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편폭의 한계로 인해, 주인공 ‘나’의 정신적 성장과 문명에 대한 추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 영어 교사 왕야권과의 교류를 통한 ‘나’의 성장에 분석을 집중하고자 한다.

왕야권은 우루무치로 부임한 상하이 출신의 영어교사로, 늘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우아하고 온화한 분위기와 세련된 매너,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나는 교양 있는 신사로 묘사된다. 그는 영어 교사로서 원어에 가까운 링귀론 발음을 구사할 수 있고, 우루무치에 단 한 권뿐인 영어 사전의 소유자이자, 서양 문화를 동경하고 숭상하며 영어 및 영미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30)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2)》(김수영 옮김, 서울: 이산, 2006), 528쪽.

31) 러시아어가 가고, 위구르어가 가고, 영어가 곧 오려 했다.(俄語走了, 維語走了, 英語就要來了。) (4쪽)

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자함’의 소유자이자, 영어를 충실히 가르치고 인간이 견지해야 할 올바른 가치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계몽’의 신념을 지닌 교사이다. 이러한 교사상은 앞서 서술한 계급 교육과 혁명·집체만을 강조하는 학교 분위기 및 기존 교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성을 드러낸다.

주인공 ‘나’의 ‘우울’로 집약되는 성장의 곤혹감과 초조함, 문명과 교양을 상징하는 대도시/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투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외지인 왕야권의 등장은 ‘나’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한다. ‘나’는 이내 왕야권과 그가 가르치는 ‘영어’ 그리고 서구 문명에 관한 무궁무진한 지식과 상상력을 자아내는 담체 역할을 하는 ‘영어 사전’에 완전히 매료된다.

주목할 점은 왕야권이 상하이 출신의 엘리트라는 점이다. “해방 전 상하이에는 모스크바보다 1.5배나 큰 대도시였고 뉴욕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보다 외국인이 많은”<sup>32)</sup> 국제화된 도시였으며, 신중국 성립 전 전대미문의 변화하고 도회적인 ‘모던’, 부르주아 등을 상징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혁명’ 지상주의적 사회 문화와 기존 교사와는 다른 풍격을 보이는 외지인 왕야권은 ‘나’에게 우투무치 외부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과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

‘나’의 왕야권에 대한 동일시 과정 초반에는 단순히 그의 걸모습에 대한 흥미와 모방의 차원에 그친다. 교양 있어 보이려 도수 없는 안경을 맞춰 몰래 끼고 다니고, 엄마가 감춰놓은 향수를 뿌리는 등의 흉내 내기가 그 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왕야권이 나이를 벗어나 ‘나’와 평등한 자세로 마음속 이야기와 비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정과 인간에 대한 존엄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임을 알게 되면서, ‘나’는 그를 망년지교(忘年之交)의 친구라 생각한다.<sup>33)</sup> 그는 또한 사춘기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로 인해 죄책감과 불안으로 괴

32) 프랑크 디코터 지음, 《문화 대혁명: 중국 인민의 역사 1962~1976》(고기탁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18), 156쪽.

33) 운명의 끈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었다. 비록 우리가 어른과 아이의 관계이고 그가 영어사전을 빌려주지 않는다 해도, 왕야권은 숙사에서 전혀 선생처럼 굴지 않으며 나

로워하던 ‘내’게 관심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조언에 의해 죄책감에서 벗어나 일종의 ‘구원’을 얻게 됐다고 느낀다. 본디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할 아빠는 평소 자식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고, ‘마란 기지’ 건설을 위해 타지로 파견된 기간에는 더더욱 부재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나’에게 있어 왕야권은 이러한 결핍을 메우며 성장 과정의 갖가지 고민과 의문에 대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피난처가 된다.

왕야권과의 우정이 깊어갈수록, 그는 점차 ‘사랑’, ‘선량’, ‘인자’, ‘우아함’, ‘고귀함’, ‘교양’, ‘양심’, ‘신사’, ‘영혼’, ‘팍송, 하느님 등 문혁 당시 결핍되었던—— 당시 강조되던 정치 이데올로기와는 반대편에 놓여 있는—— 인성과 관련된 단어와 인간이 견지해야 할 가치와 품성의 소중함을 ‘나’에게 일깨워주었다. 예컨대 류아이란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며, 아이(愛)를 인자함과 연결 짓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파할 줄 아는 따뜻한 감정과 인성의 소유자여야 함<sup>34)</sup>을 강조한다. 왕야권과의 교류를 통해 ‘나’는 왕야권이 강조한 진정한 신사와 문명에 대한 추구를 시작하고, 어떤 것이 ‘우아함’으로 상징되는 고귀한 삶인지 점차 이해하며 끊임없이 ‘성장’한다. 따라서 왕야권은 ‘나’의 정신적 성장과 인격 형성의 조력자, 즉 정신적 멘토가 된다.

‘나’의 눈에 비친 왕야권은 태양처럼 빛나는 아우라를 갖춘 구원자 형상<sup>35)</sup>으로 묘사된다. 태양이 만물의 성장에 자양분과 따뜻함을 주는 원동력이라는 점과 계몽을 뜻하는 영어 단어 enlightenment와 연결 짓는다면, 그가 서구 문명에

---

를 아주 평등하게 대해주었다. 그럼 우린 뭐지? 나이를 따지지 않는 친구, 그래, 이 말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려. 우린 바로 나이와는 상관없는 친구인 거야. (命運把我們連在了一起, 儘管, 我們是大人和孩子的關係, 儘管他不肯把英語詞典借給我, 但是我發現王亞軍在宿舍裏對我很平等, 完全不像是老師和學生, 像什麼呢? 忘年交, 對了, 這個詞很適合我們. 我們就是忘年交.) (184쪽)

34) “아이(愛)란 인자함을 뜻하는 거야.”/ “인자한 게 뭔데요?”/ “그긴, 음, 그긴…… 뭐랄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걸 봤을 때 자기 마음도 아픈 거.”(愛不是別的, 是一種仁慈. / 什麼是仁慈? / 就是, 就是, 怎麼說, 就是看見別人受難時, 你自己心裏也難過.) (48쪽)

35) 복도의 불빛은 어두웠지만 왕야권은 태양처럼 빛났다. 그가 비추는 곳은 어디든 환하게 밝았다. 왕야권이 있는 곳에서 인민은 해방을 얻었다. (過道里的燈光很暗, 可是王亞軍像太陽一樣地朝我走來. 王亞軍, 像太陽, 照到哪里哪里亮, 哪里有了王亞軍呼儿害哟, 哪里人民得解放.) (169쪽)

대한 지식과 풍격을 통해 ‘내’게 성장의 자양분을 제공하고 ‘계몽’시키는 존재로 다가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에 눈에 비친 왕야권은 영어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신념, 영어 및 “중국과는 완전 다른” 언어적 분위기의 문화 전파라는 측면에서 선교사 혹은 순교자<sup>36)</sup>로 비유된다.

왕야권은 ‘4구 타파’, ‘우귀사신 타도’, ‘봉건주의, 자본주의, 수정주의를 호되게 비판하자’ 등의 ‘문혁’ 담론이 난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구 계몽의 신념을 견지하는 인물로, 그는 정면으로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견고한 인도주의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sup>37)</sup>

이렇듯 왕야권은 줄곧 최선을 다해 류아이를 이끌었고, 그의 풍격, 언어와 행동 등 각 방면에서 류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혁 시기에 아동과 청소년 교육이 훼손돼 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멘토가 부재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왕야권은 이를 극복할 대안을 보여주는 서구 계몽 이념의 체현자로 묘사된다. 하지만 프티부르주아적이고 유심론적인 그의 사상과 행동거지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다.

‘왕야권(王亞軍)’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중국어에서 2등을 상징하는 그의 이름에서 그가 1등으로 상징되는 주류 세계에 진입이 불가능한 존재임이 암시된다. 왕야권은 우루무치에서 ‘별종’으로 취급된다. 학부모들은 그를 자기 자식을 부르주아적으로 타락시킬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여학생들에게 보충 수업하는 왕야권의 행실에 문제가 많다고 끊임없이 경계하며, 자식과의 거리를 두도록 종용하며 욕설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그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냉대,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으로 인해 그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영어 교사 왕야권과의 교류가 깊어질수록, ‘나’는 영어와 지식 및 문명과 교양의 세계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매개체이자 문명의 계몽을 은유하는 영어 사

36) 그 시절 왕야권은 꼭 선교사 같았다. 그가 전도한 실질적 복음은 ‘잉글리쉬(ENGLISH)’라고 부르는 언어 및 위구르어, 중국어, 카자흐어, 타지크어, 시보어(錫伯語)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적 분위기의 문화였다. (王亞軍就像是一個在那種時節的殉教士, 他布道的實質內容不過是一種叫作ENGLISH的語言, 以及圍繞在這種與維吾爾語和漢語, 哈薩克語, 塔吉克語, 錫伯語完全不同的語言氛圍之上的文化。) (265쪽)

37) 鄒軍, <《英格力士》裏的成長探索> (《安康學院學報》 2016年 04期, 2016), 49쪽.



전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이에 대한 집착과 추구가 깊어진다. 문화/지식의 불모의 시대에 사전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통로이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수록된 수만 가지 어휘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왕야권에게 듣는 '별세계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서구 문명에 대한 추구하고 집착이 깊어진다. '나'는 왕야권에 의해 계몽되었지만, 엄마의 오해로 인해 왕야권과 영어 사전에 대한 접근이 불허되자,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나머지 영어 사전을 훔치려다 실패한다. 하지만 왕야권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고 '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

영어 사전을 빌리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나'는 아지타이를 짝사랑하는 왕야권을 설득해 아지타이의 나체를 훔쳐보러 목욕탕으로 향한다. 왕야권은 양심에 따른 죄책감 때문에 훔쳐보려 하지 않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발각된다.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 왕야권은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고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다. '나'는 아버지의 압력으로 진상을 말하지 못하고,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을 자신의 과실에 의해 비극적인 운명으로 내몬다.

소설은 분명 왕야권을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하였고, 그를 류아이가 성장하는 길잡이이자 향후 인생의 원동력과 버팀목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성장 소설에서 긍정적인 길잡이는 모두 평등한 신분으로 나이 어린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고, 남을 기꺼이 돕고 동정심이 풍부하며, 종종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주변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왕야권은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고귀한 사람이었다.<sup>38)</sup>

왕야권을 우상으로 여기는 류아이는 그와 같이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싶어 인간힘을 쓴다. 하지만 이는 당시 어른들의 눈에는 프티부르주아의 퇴폐적 낭만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대표하는 또 다른 문화는 당시의 유행 문화 혹은 패권 문화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이루었고, 그는 분명 그가 처한 시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아이는 그를 선택했지만, 그에게 배울 수 없었고

38) 孫希娟, <關於成長的敘事: 解讀王剛長篇小說《英格力士》>, 《小說評論》2007年 06期, 2007, 81쪽.



심지어 모방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미래에 속하는 주인이 미래에 속하는 문화를 선택했는데, 두 문화가 모순·충돌하는 시대에 그들은 모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sup>39)</sup>

영어에 몰두하며 정신적 멘토인 왕야권의 조력 하에 아름다움과 ‘문명’ 내지 ‘교양’으로 환기되는 문화적 소양에 대한 ‘나’의 진지한 추구는 류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생의 추구였다. 이러한 영어와 문명에 대한 추구는 ‘나’를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지닌 정체성을 갖게 하였다.

소설 결말에서 독자의 예상과는 달리 ‘나’는 대학 입시에 실패함으로써 꿈에 그리던 ‘만리장성 안쪽’의 대도시로 진입하지 못하고, 우루무치에 여전히 남아 모교의 영어 교사가 돼 왕야권의 계승자 역할을 하게 된다. ‘나’는 동일시의 대상인 왕야권을 벤치마킹하며 이미 현실로 변한 어린 시절의 삶의 상상을 지속하며, 끊임없이 영어로 환기되는 외부 선진 문명에 대한 동경과 보다 확장된 시야를 유지하며 생활하게 된다.<sup>40)</sup> 따라서 ‘나’의 추구하고 동경이 지속되는 한 ‘나’는 현실의 패배자가 아닌 이상과 문명에 대한 추구를 계속하는 영원히 성장하는 지식인이다.

### 3. 문혁 시기 사회 현실과 지식인 비판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소년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1970년대 문혁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 작중 주인공 ‘나’를 둘러싼 가정, 학교와 우루무치의 사회상을 소년의 시각을 통해 굴절시켜 드러냈다.

39) 孟繁華, 앞의 논문, 83쪽.

40) 그는 안경을 쓰고 영어의 세계에서 미국을 보았고 유럽을 보았으며, 18, 19, 20세기의 문명 생활을 보았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의 웃는 얼굴과 습관을 보았다.(他帶著眼鏡, 在英語的世界裏, 看到了美國, 看到了歐洲, 還看到了十八、十九和二十世紀的文明生活, 看到了另外一種人的笑容和習慣)” (319쪽)

‘나’는 사회와의 접촉이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에, ‘나’의 학교와 가정 생활에 대한 체험과 사고, 주위 환경에 대한 성장기 특유의 민감하고 날카로운 관찰과 느낌을 통해 문혁 시기 부조리한 시대 분위기와 사회의 단면 그리고 어른 세대 지식인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앤 서스톤의 호소력 있는 글에 따르면 문화대혁명은 다양한 계층의 상실, ‘문화와 정신적 가치 상실, 지위와 명예 상실, 경력 상실, 존엄성 상실’,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면서 당연하지만 인간에 대한 신뢰와 기대의 상실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었다.<sup>41)</sup>

소설 곳곳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비판투쟁집회’, ‘계급적 구분’, ‘반동 기술크위’, ‘반혁명분자’, ‘사상개조’, ‘반동 표어’ 등의 어휘와 관련 사건 등을 통해 ‘계급투쟁’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일상에서 자연스레 접하는 ‘혁명 열사’, ‘혁명’을 고취시키는 노래와 영화 등에서 세상이 정치구호와 혁명 이데올로기의 선전으로 도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도처에 산재한 ‘죽음’과 관련된 주위 사람들의 자살, 범죄자들에 대한 총살 집행 장면, 사고사 등의 묘사와 이에 대한 ‘나’와 사람들의 반응은 작품에서 인성의 마비를 비판하는 장치 내지 모티프로 작용한다. 총살 장면을 구경하며 공포와 쾌감을 느끼는 소년의 내면, 황쉬성 부친의 자살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와 이웃들,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한 쓰레기 리의 죽음, 부랑자 라오장(老張)의 허망한 사고사, 문혁 종결 이후 반동으로 몰린 교장의 자살 등등 이 시기는 도처가 죽음으로 가득 찬 시공간이다. 하지만 누구도 죽음 앞에서 진심 어린 애도를 하거나 죽음을 통해 성숙한 사유로 나아가는 이가 없다. 이를 통해 문혁 시기 현실의 폭력성과 어두운 악의 면모를 엿볼 수 있으며, 이 세계가 ‘폭력과 광기’로 가득 찬 세계임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렇듯 ‘폭력과 광기’로 가득 찬 세계’임이 작품에서 드러나지만, 작가는 이를 상흔 문학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 작품은 단순한 폭력의 증언

41) Anne F. Thurston, *Enemies of the people*, New York: Knopf, 1987, pp.208~209; 프랑크 디르티 지음, 앞의 책, 18~19쪽에서 재인용.

내지 직접적인 폭로적 성격은 강하지 않다. 주인공 ‘나’의 시선에 따라 서정적으로 서술되는 가운데 이 시대의 폭력적 분위기가 자연스레 드러난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나’에게 끊임없이 암흑의 이미지로 환기되며, 혼란과 위기가 겹겹이 잠복해 있는 일상생활로 인식된다.<sup>42)</sup> 이는 ‘나’의 외부 현실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도출된 어른/아이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sup>43)</sup>는 판단과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이 소설의 상징적 공간은 크게 아이와 어른의 세계, 혹은 순수와 비순수의 세계로 나뉘는데, 어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권력관계이며, 이는 이념적 명분이라는 외투를 쓴 동물적 생존본능, 이기적 보신주의로 표현된다.<sup>44)</sup>

소설의 도입부인 1장에서, 문혁 시기 ‘반동 기술 권위’로 비판받고 마오 주석 초상화를 그리던 아빠가 투시 도법을 사용해 마오 주석의 한쪽 귀를 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실세인 관 주임(範主任)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 묘사된다. 칭화대학(清華大學)을 졸업한 엘리트 관 주임은 투시 도법의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지한 우루무치 혁명 위원회 주임 선 총지휘관(申總指揮)의 말 한 마디에 아이 앞에서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그의 환심을 사려 한다. 아빠는 부조리한 폭력을 무기력하게 감내하고 오히려 자신의 화를 자식에게 푼다. 이러한 묘사는 문혁 시기 어른 세계의 부조리와 폭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나’의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한 기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학생들을 제외하면, 주인공 ‘내’가 주로 접하는 이들은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늘 마주치는 어른들, 즉 ‘아버지’ 세대 지식인들이다. 따라서 작품 전반에 걸쳐 ‘나’를 둘러싼 지식인 군상과 사회의 차가운 면모에 대한 ‘나’의 관찰, 인식과 경험의 심화가 펼쳐진다. 문혁 시기 서로 다른 사연을 지니고 우루무치에 정착

42) 문화대혁명은 정말이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았다.(文化大革命真是把一切都搞亂了)” (306쪽)

43) “어른들은 정말 별종이야.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大人們果真是另外一種動物。他們跟孩子處在完全不同的世界裏”) (254쪽)

44) 김양수, <오킨이의 말> (왕강, 앞의 책), 507쪽.

한 ‘외지인’이자, 명문대인 칭화 대학을 매개로 얽혀 있는 지식인인 류아이의 부모, 교장, 판 주임 등이 특히 중점적으로 묘사된다. 이들은 모두 엘리트 출신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하지만 문혁과 문혁 종결 이후 각각 정치적 운명에 휩쓸려 부침을 거듭하는 불행한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문혁 시기의 강압적 정치 분위기에 부화뇌동하며, 난처하고 비참한 사회 환경 속에서 지식인으로서의 내면의 신념과 양심을 저버리고, 허위적이고 나약하며 웅졸하고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인성의 왜곡된 측면을 드러내는 지식인 형상이다. 작품은 “문명의 소유자이자 전파자 그리고 문명의 수혜자”인 “이들 지식인들의 인성이 완전히 뒤틀려 인격이 거의 상실되는 비참한 생존 상태를 묘사했는데, 더욱 무서운 점은 지식인들이 이러한 생존 상태를 허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점”이다.<sup>45)</sup> 따라서 이러한 면모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판단하는 주인공 류아이는 “이들 부모 세대와 풀리거나 조화될 수 없는 침예한 모순과 충돌을 이루며, 강렬한 반항과 살부(弑父)적 경향을 지닌다.”<sup>46)</sup>

주인공 ‘나’의 부모는 가장 밀접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기에, 부모에 대한 관찰과 판단이 전체적으로 많은 편폭을 차지한다. 이들의 긍정적인·부정적 측면에 대한 묘사가 갈마들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 색채의 묘사와 인식이 많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해 쉬쯔둥(許子東)은 “《변신 인형(活動變人形)》 이래 가장 신랄하게 부모에 대해 조명한 작품”<sup>47)</sup>이라 평가한 바 있다.

류아이의 부모는 대도시에서 성장해 명문대학을 졸업한 건축가 부부로, 전형적인 고급 지식인이다. 이들은 신장 건설 지원에 배치돼 우루무치에 정착했고, 겉으로는 상호 신뢰하며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하지만 실상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용기가 결여돼 있다. 동물적 생존 본능에 입각한 보신주의와 권력자에 대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자식과의 진정한 소통이 부재하다. 특히 정치적 풍파 중에 부모는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는

45) 羅豔, <《英格力士》知識分子群像解讀> (《蘭州學刊》 2010年 S1期, 2010), 91쪽.

46) 孟繁華, 앞의 논문, 82쪽.

47) 王剛, 앞의 글, 中國網.

데만 급급해 하고, 이웃의 불행에 대한 동정심이 극도로 결핍된 모습을 통해 그들 내면의 허위적이고 이기적이며 차갑고 잔혹한 면모를 드러낸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서는 특히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반항과 ‘살부’의식이 전편에 걸쳐 드러난다. 문학에서 아버지나 아들 사이가 갈등을 일으킨 다거나 살부를 한다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 또는 권위와 반권위, 타협과 도전 등을 표상한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전통을 상징하거나, 도덕적인 계율, 금지와 제지의 권위를 상징하며, 또 붕괴의 표상이기 때문이다.<sup>48)</sup> 성장소설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비판하는 주인공 혹은 초점 화자가 등장함으로써 기성 사회에 대한 부정과 비판의 반담론을 형성하고 있다.<sup>49)</sup>

특히 성장 주체의 자아 정체성의 정립 과정을 다루는 성장소설은 자기 동일시의 1차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부정이 ‘아비 찾기’와 ‘아비 죽이기’의 모티프로 제시된다. 아버지와와의 갈등이 두드러진 서사 패턴을 이루다 마무리 단계에서 갈등을 넘어선 아버지와의 화해를 다루는 이중적 서사 양상을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서 찾을 수 있다.

아버지 류청종(劉承宗)은 어려서 건축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미션스쿨과 세인트존스 대학, 칭화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소련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 건축가이다. 문혁 시기 아버지는 정치/혁명에 의해 배제(‘반동 기술권위’)된 인물로, 자신이 주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호시탐탐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신분으로의 회귀를 꿈꾼다. 자신의 건축 설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문혁 시기를 견디고 있다.

지금 나보고 다시금 아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하면, 권력 가까이에서 맴돌았던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나를 사랑했고 엄마는 더욱더 그러했다. 그러나 아빠는 온갖 방법을 다해 ‘붉은’ 엔지니어가 되었다. 아빠는 조직의 핵심인 물이 되고 나서 정치적 진보를 요구했고, 또 상관 앞에서는 눈물로 자기의 결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우파 투쟁 때는 소련 유학 시절 같은 기숙사를 썼던 친구

48)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서울: 민음사, 1991), 430~431쪽 참조.

49)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서울: 박이정, 2002), 175쪽.

를 고발하기도 했다.<sup>50)</sup>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자식 '나'에게 비쳐진 아버지의 모습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이자 출세 지향론자였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 '붉은 엔지니어'가 되고 입당해 승승장구했으며, 조직의 신입과 출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인다. 예컨대 민족극장을 설계하고, 문혁 시기 마란 기지 수소폭탄 공장 설계를 위해 차출되었을 때처럼,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때는 거만하고 뽐내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했다. 문혁 당시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바빴던 인물로 묘사되며, 마오 주석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페인트 투성이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경감시키려 애쓴다. 따라서 '나'에게 아버지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아빠의 안경과 늘 눈치를 살피는 듯한 표정을 떠올렸다."<sup>51)</sup>는 무기력하고 보신을 위해 늘 남의 눈치를 보는 이미지로 비춰진다.

다른 사람의 재난——예컨대 대학 동창의 자살, 자신의 고발로 인한 친구의 사고사——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황쉬성의 아버지가 자살했을 때 남의 불행을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하며<sup>52)</sup>, 문혁 종결 이후 자신을 괴롭혔던 판 주임이 자살 시도 이후 장애인이 된 모습을 보고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보다 '인과응보'라고 대놓고 독설을 퍼붓는다. 이를 통해 아버지 내면의 차갑고 이기적인 인성의 상실과 잔혹한 면모가 드러난다.

또한 권력과 강압 앞에서는 굴종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일 뿐, 강압과 불공평함 앞에서 의문을 제기할만한 용기와 존엄도 결여되었다.<sup>53)</sup> 예컨대, 마오

50) 現在讓我重新評價父親，我漸漸發現他是一個善於鑽營的人，他愛我，他更愛母親，可是他想法設成了紅色工程師，他成了組織上最重視的人，他要求進步，並在它的領導面前哭泣，表示自己的決心，據說反右的時候，他在蘇聯揭發了自己同宿舍的人…… (28쪽)

51) 我爸爸是什麼樣的人？我想起了他戴的眼睛，以及經常顯出恐懼的神情…… (45~46쪽)

52) 엄마, 아빠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다. 다른 집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명절을 쇠는 것같이 즐거워하는 걸까? 나는 단지 조금 흥분했을 뿐인데, 왜 그들은 희열을 느끼는 거지?(爸爸媽媽的情緒讓我吃驚, 別人家發生了死人的事情為什麼會叫他們有一種像是突然過節一樣的喜悅. 我只是興奮, 可他們是喜悅, 為什麼?) (35쪽)

53) 孫希娟, <關於成長的敘事: 解讀王剛長篇小說《英格力士》> (《小說評論》 2007年 06期, 2007), 82쪽.

주석 초상화를 그리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타당했을 때도 권력자의 비위만을 맞추려 하고, 류아이가 학교에서 ‘반동 표어’ 사건의 누명을 썼을 때, 진상을 규명하지도 않고 교장에게 자신이 종용했다고 인정한다. 자신의 외아들 류아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부족하며, 걸핏하면 가부장적인 거친 호통과 욕설,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아버지 형상은 성장의 단계에서 아버지와의 소통을 원하는 ‘나’와 필연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으며, ‘나’에게 아버지는 오히려 ‘부권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나’는 이런 결핍을 ‘상상적 아버지’ 왕야권에게서 충족하려 하며,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갈등으로 내면의 이야기가 채워진다.

류아이의 어머니 친첸치(秦萱琪)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며 그녀에 대한 정서적 친연성을 보인다. 하지만 반동 표어 사건에 연루된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교장과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하고, ‘방공호’를 설계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으면서 자식에게 점차 무관심하고, 훈육을 이유로 ‘나’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모습을 누차 경험한 이후, 이러한 감정적·정서적 친연성은 점차 멀어진다.<sup>54)</sup> 이들 부모의 모습은 문혁 당시 제대로 된 자식 교육보다는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살아남으려는 현실 지향적인 면모가 더욱 강하기에, 성장의 주체인 ‘나’에게는 성장의 본보기와는 거리가 먼 부정적인 부모의 면모로 다가오는 것이다.

인성과 사랑에 입각한 교육의 실천자인 왕야권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나’에게 특히 현실 사회의 속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그들은 왕야권의 출신 배경과 교육철학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행실이 나쁘다’는 풍문을 믿고 선입견에 빠져 자식과 왕야권의 교류를 막는 등 경솔하고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는 자식인 ‘나’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들에겐 자식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가족들

54) 지금 돌이켜보면 그토록 엄마를 미워했던 이유는 엄마가 그때 너무 모질게 굴었고 또 내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現在回想起來, 我之所以那麼厭惡母親, 是不是因為她當年太狠了, 而且她從不好好回答我向她提出的問題。) (215쪽)



사이에 상처를 낳는 잔인한 행위가 자행됨을 비판하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sup>55)</sup>

부모의 이해심 부족에 따른 슬픔과 원망, 실망의 감정이 쌓여갈수록, '나'에게 '집'은 '두려운 낯설음'으로 다가온다. 즉 심리 주체의 자아 소외적 숙명을 가리키는 공간이자 두려운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다.<sup>56)</sup> '나'의 가출 사건도 여기서 비롯되고, '상상적 아버지' 왕야권에게 의지하려는 갈망도 커진다.

특히 영어 사전을 점유할 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왕야권을 목욕탕 뒤편으로 데려간 '나'와 왕야권이 발각되었을 때, 부모는 극도의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안은 왕야권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 때, 자식을 보호하려는 일념으로 진상을 은폐하고 초지일관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챙기려 한다. 이는 '나'와 부모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멀어지게 만든 계기가 된다.

소설의 결말에 이르면, 문혁 종결 이후 완전히 달라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류아이의 부모는 다시 '기술 권위'로 복권되고 도처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고, 아버지 류청쥬은 이내 시대적 수요에 따라 다시 버려진다.

아버지는 문혁 시기에는 극좌적 정치 이데올로기의 강조와 지식 무용론의 입장에서 핍박받는 지식인이었다. 문혁 종결 이후에는 4개 현대화의 흐름에 따라 현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관념의 변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현대적 건축이 주된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버지는 우루무치와 어울리는 고전적 풍격을 줄곧 견지하였다. 결국 아버지는 총설계사 직위에서 해임되며, 또 다시 시대로부터 외면당한 비운의 지식인으로 전락했다.

55) ① 사람이란 그런 건가 보다.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상처를 준다. 가장 잔인한 행동은 종종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人總是這樣的, 從來都是親近的人互相傷害。最殘酷的行爲往往發生在親人之間。) (65쪽) ②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진짜로 큰 상처는 언제나 피붙이 간에 발생하며, 종종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다는 것을. (那時我就懂了, 真正的傷害永遠是在親人們之間發生, 而且往往是以愛的名義。) (277쪽)

56) 가만히 서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퍼뜩 '집'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고, 또 '아빠'와 '엄마'도 두려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我就這樣默默地注視著他們, 感受著他們的可憐。可是, 我突然意識到家這個詞有些可怕, 而且爸爸媽媽也是很猙獰的概念。) (240~241쪽)



이와 관련해 왕강은 아버지가 “비운의 인물이며, 주목할 점은 그의 비극이 상처뿐인 시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펼치 하에서 각 시대 모두 그에게 새로운 상처를 가져다주었다”<sup>57)</sup>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대와 조화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거듭되는 좌절과 상처로 점철된 지식인상을 아버지의 형상으로 성공적으로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다.

“투 드리프트즈(two drifters), ‘두 표류자’라, 아주 멋진 표현이야. 아빠와 너도 가끔은 두 표류자 같지 않니?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허클베리는 집을 나와 부잣집에서 자라다가, 문명사회의 구속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잖아? 그리고 흑인 소년 짐과 함께 뗏목을 타고 강을 표류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온갖 추악한 일들을 겪고, 나중에 진정으로 사회를 이해하게 되지. 함께 표류하면서 두 사람은 두터운 우정을 쌓고 말이야.”<sup>58)</sup>

결말에서 임종 직전 아버지가 왕야권이 ‘내’게 가르쳐준 팝송 <문 리버>를 함께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가사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대목에서, 사실 그가 영어에 능통하며 가정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의 말을 통해,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건과 사회의 암흑을 경험하며 진정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표류자’와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허클베리 핀과 짐과의 우정을 통한 정신적 성장의 여정은 ‘나’와 왕야권의 교류와 우정을 통한 성장을 연상시킨다.

아버지는 <문 리버>를 노래하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왕야권에게 죄를 씌워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만든 속악한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를 하고, 자신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랐던 기회주의자였음을 고백한다.<sup>59)</sup> 왕야

57) 王剛, <英文版自序>(《英格力士》, 北京: 作家出版社, 2016).

58) two drifters, 很有意思, 是兩個漂流者, 爸爸跟你有時就像是兩個漂流者, 在馬克·吐溫的小說《哈克貝利·費恩曆險記》裏, Huckleberry逃出家, 被有錢人收養, 又受不了文明社會的拘束, 他逃走, 與黑人吉姆共乘一筏, 在河上漂流, 沿途遇見許多各種各樣的事, 醜惡的事情, 他們真正了解了社會. 在共同漂流的日子裏, 兩人結下了深厚的友誼. (500쪽)

59) “네 영어 선생한테 너무 미안하다.” (……)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긴, 너 하나 잘되기만을 바란 기회주의자였다. (我對不起你的英語老師. (……) 漸漸地他的眼淚流出來, 說: 爸爸是機會主義者, 爸爸任何時候都想爲你好.) (317쪽)

권에 대한 가족의 참회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문 리버>를 트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를 통해 대립적이던 어른 세계와 아이 세계의 갈등이 진정한 화해로 끝맺는다. 성장 주체인 '나'의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거부가 결국 갈등을 넘어서 아버지와의 화해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과 각성이 다시 시작될 것임이 암시되는 것이다.

교장(校長)은 칭화 대학(清華大學) 출신의 지식인으로, “인생의 이상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교육적 이상과 정치에의 굴복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으려는”<sup>60)</sup> 입체적인 인물 형상으로 묘사된다.

우루무치 제1중학의 교장으로서 그는 ‘혁명’ 교육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책임진 인물이다. ‘나’의 시선에 비친 교장은 ‘반동 표어’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기민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부정적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우루무치에서의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왕야권이 자신을 희롱했다는 황쉬성의 허위 자백으로 인해 퇴직될 위기에 처한 왕야권을 옹호하고, 학부모들의 갖은 항의에도 꺾끗이 영어 교사와 영어 수업을 보호하며, 지역 실세인 판주임을 설득해 영어 교육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면모는 문혁 시기에도 불완전하게나마 지식과 문명을 전파하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장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교장은 ‘반동 표어’ 사건에서 누명을 쓴 ‘나’의 위기를 빌미로 삼아, 류아이의 엄마와 간통하며 사심을 채운 적도 있다. 문혁 종결 이후, 그는 지위가 급전직하하며 문혁 기간 동안 린바오(林彪)와 사인방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지칭하는 “삼종인(三種人)에다가 판 주임의 앞잡이”로, “연명으로 장칭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나중에 발각되어 강제노동을 했으며”<sup>61)</sup>, 결국 자살하는 비극적 말로에 처한다.

60) 李曉媛、杜彩風, <王剛《英格力士》中主要人物形象分析> (《現代語文(學術綜合版)》2014年 11期, 2014), 51쪽.

61) 그는 삼종인에다가 판 주임의 앞잡이였다. 칭화대학 동창생인 그들은 연명(連名)으로 장칭에게 편지를 보낸 일이 나중에 발각되어 아이딩후(艾丁湖)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다고 한다. (說是他被送到艾丁湖農場勞動了, 他是“三種人”, 是範主任的走狗, 而且他們兩個作爲清華的校友, 曾經聯名給江青寫過信, 所有這一切最後都被揭發出來。) (308쪽)

교장의 자살 이후 '내가 그의 일기를 훔쳐 본 뒤, 그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엄마 친첸치(秦萱琪)만을 사랑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순애보적인 사랑을 간직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와 같은 셸리의 시구를 좋아하는 등 높은 문학적 소양과 감성, 그리고 재능의 소유자였으며, 이를 통해 문학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이러한 지식인적 면모를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을까 라는 '나의 동정심과 의문을 자아낸다. 62)

따라서 교장은 문혁 시기에는 악인도 단순히 악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작가의 식이 담겨 있는 인물 형상이다. 청년 시절 높은 문학적 감성과 이상의 소유자였음에도,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자기중심을 잃고 부화뇌동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명적 비극을 맞이한 인물이지만, 우루무치에서의 영어 교육의 활성화와 평생을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한 순정을 간직하는 등 지식인으로서의 양지와 인간적 면모를 간직했음을 감안하면, 완전한 악인으로만 간주할 수 없는 입체적 인물의 면모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판 주임은 칭화 대학 출신 엘리트 지식인 중 가장 비열하게 묘사되는 인물 형상이다. 그는 교장과 함께 우루무치 최대의 무력투쟁에 참가했던 끈끈한 혁명 동지였다. 문혁 당시에는 지역(大院)에서 권력을 장악한 실세였다. 하지만 더 큰 권력을 지닌 선 총지휘관 앞에서는 주구처럼 행동하며, 도덕과 양심을 상실한 채 정치와 권력에 굴종하며 사리사욕을 취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악용해 위구르어 교사인 아지타이를 욕보이려 하는 저열한 행동을

62) 나중에 몰래 교장의 일기를 훔쳐봤다. 거기엔 한 남자의 가슴속 깊은 정이 격정적인 언사와 아름다운 수사들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엄마였다. 그리고 그 역시 판 주임이 말한 시구를 좋아했다는 걸 알았다.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일기를 읽어가던 나는 그의 멋진 문학적 표현에 감동을 받았고,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장칭에게 그토록 유려한 문장의 편지를 썼을 정도로 판 주임과 교장의 문학적 감성이 풍부했다는 것이다. 예전엔 그들 모두 재기 발랄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당시와 같은 정치적 상황 아래서 그것들을 잃지 않고 간직해 나갈 수 있었을까?(以後, 我曾經悄悄地偷看過校長的日記, 裏邊充滿激情還有豔麗的詞語, 顯示了一個男人深情的話語權, 所有那些呵護都是爲了母親。他說, 他一生只愛過一個女人, 就是母親。而且, 我發現他也喜歡用與範主任一樣的詩句: 冬天已經過去, 春天還會遠嗎? 我被他言辭的高貴所打動, 並恍然大悟: 難怪他們能給江青寫出那麼有文采的信, 他們是一路貨。都曾經是充滿才情的青年。可是, 在今天的政治壓力下, 他們還能堅持得住嗎?) (309~310쪽)

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헐박과 보복을 서슴지 않는 등 아지타이를 비롯한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지타이에게 “영국 시인 바이런의 시야.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sup>63)</sup>와 같은 문학적 감성을 드러내는 모습은 그의 지식인으로서의 소양과 미래에 대한 이상이 내면에 아직 간직돼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혁 종결 이후 교장과 마찬가지로 신분이 급전직하하는 비참한 처지를 겪고 자살을 시도하다 장애인이 되고, 문혁 시기 자신에게 굴종하던 류아이 부모에게 멸시받는 묘사에서 그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양심까지 저버렸지만 결국 비참한 운명에 처한 당시 지식인들에 대한 씩씩한 감정을 자아낸다.

#### 4. 나가며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작가 왕강은 개혁개방 이후 고도로 상업화된 중국의 사회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며 문학의 정신적인 감화력에 대한 믿음과 ‘주변화’된 작가의 처지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를 원동력으로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는 문학의 본원적 본질에 다가가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작가 왕강은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를 통해 기존의 문혁 서사에서 보이는 국가주의적 한계 및 ‘거시 서사’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과 ‘일상’에 주목하는 ‘60년대 출생 작가군’의 창작적 특성을 드러냈다. 또한 ‘60년대 출생 작가군’의 문혁 서사에 결핍된 성장의 조력자 형상을 성공적으로 창조해냄으로써,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훈육을 통한 소년의 성장이라는 도식적인 중국 당대 성장소설의 틀에서 벗어난 진정한 ‘동일시의 대상’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며 성장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혁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극단화한 시대를 넘어 중국이 상업화

63) 是英國人拜倫的詩，冬天就要過去，春天還會遠嗎？(237쪽)

의 풍조 속에 인간이 견지해야 할 가치와 문학의 본질에 대한 추구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현실 속에서 “인자함”과 ‘고귀함’을 동력으로 삼고, “그것이 표현한 고귀함, 인자함, 섬세함, 따뜻함을 통해 오늘날 문학에 특히 유익한 반성적 각도를 제시하고”, “계몽의 ‘신념’을 불어넣었다는 점”<sup>64)</sup>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니, 이러한 측면은 작금의 문단과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 < 參考文獻 >

- 王剛, 《英格力士》, 北京: 作家出版社, 2016.
- \_\_\_\_\_,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 김양수 옮김, 파주: 푸른숲, 2006.
- 李敬澤, 《紙現場》,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 陳曉明, 《表意的焦慮》,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2.
- 許暉, 《“六十年代”氣質》,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1.
-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서울: 심설당, 1985.
-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2)》, 김수영 옮김, 서울: 이산, 2006.
- 왕더웨이 지음, 《현대 중문소설 작가 22인》, 김혜준 옮김, 서울: 학교방, 2014.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서울: 민음사, 1991.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서울: 박이정, 2002.
- 프랑크 디뢰터 지음, 《문화 대혁명: 중국 인민의 역사 1962~1976》, 고기탁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18.
- 한용환, 《소설학 사전》, 서울: 고려원, 1992.
- 李曉媛, 《王剛小說創作研究》, 伊犁師範學院 碩士學位論文, 2016.
- 徐秀明, 《20世紀中國成長小說研究》, 上海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 戴瑤琴, <流氓的拳頭與紳士的耳光: 評小說《英格力士》>, 《當代文壇》 2005年 06期, 2005.
- 羅朋, <詩化與笑謔化: 評王剛的《英格力士》>, 《當代文壇》 2006年 03期, 2006.

64) 王剛, <我是寫小說的王剛>, 中國網.

(<http://www.china.com.cn/chinese/RS/764433.htm>) (검색일: 2019.8.1.)

- 羅豔, <《英格力士》知識分子群像解讀>, 《蘭州學刊》2010年 S1期, 2010.
- 廖曾, <論小說《英格力士》的兒童視角敘事策略>, 《昆明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007年 02期, 2007.
- 劉永春, <從集體記憶到個人敘事: 新世紀長篇小說文壇敘事的裂變與轉向>, 《時代文學》(上半月) 2014年 01期, 2014.
- 李曉媛、杜彩風, <王剛《英格力士》中主要人物形象分析>, 《現代語文(學術綜合版)》2014年 11期, 2014.
- 孟繁華, <傷痕的青春 殘酷的詩意: 評王剛的小說創作>, 《南方文壇》2006年 01期, 2006.
- 白燁、陳曉明、李敬澤、張頤武, <《英格力士》拿什麼打動了我們>, 《長篇小說選刊》2005年 02期, 2005.
- 孫希娟, <關於成長的敘事: 解讀王剛長篇小說《英格力士》>, 《小說評論》2007年 06期, 2007.
- 楊昌俊、王樺, <論王剛小說《英格力士》中的憂傷>, 《名作欣賞》2013年 21期, 2013.
- 作亞平, <《英格力士》的追求>, 《齊齊哈爾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007年 01期, 2007.
- 張國龍、張燕玲, <處於成長之中的中國“成長小說”>, 《南方文壇》2009年 04期, 2009.
- 張頤武, <優雅的崛起: 中國文學的新空間>, 《文學自由談》2004年 06期, 2004.
- 張春梅, <邊緣的遊離者: 何處之英格力士>, 《湖南文學》2016年 06期, 2016.
- 周景雷, <政治傷痕的文化記憶: 近年長篇小說創作考察之一>, 《當代作家評論》2007年 05期, 2007.
- 鄒軍, <《英格力士》裏的成長探索>, 《安康學院學報》2016年 04期, 2016.
- <“當代”文學拉力賽“第四站”評委評語>, 《當代》2004年 05期, 2004.
- <“長篇小說年度(專家)獎”評語>, 《當代》(長篇小說選刊), 2005年 01期, 2005.
- <“長篇小說年度獎”評選彙報>, 《當代》(長篇小說選刊), 2005年 01期, 2005.
- 김봉연, <1990년대 이후 중국 당대 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결핍과 그 서사적 대응방식>, 《비교문화연구》47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 Fengxia Tan, “Depictions of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ese Juvenile Fiction”, *Bookbird* (50:1), Jan 2012.
- 高方、張蓓, <我最重要的作品還會是寫新疆的>, 《新疆日報》2013.1.17.
- 張頤武, <中國夢的隱秘斷片>, 《文匯報》2004.10.25.
- 王剛, <我是寫小說的王剛>, 中國網.

(<http://www.china.com.cn/chinese/RS/764433.htm>) (검색일: 2019.8.1.)

<王剛: 我抓住一切機會寫自己的惡 也未必能找到一條生路>, 搜狐文化, 2016.2.15.)

(<http://cul.sohu.com/20160215/n437407345.shtml>) (검색일: 2019.8.1.)

< Abstract >

The Study on Wang Gang's Novel *Ying Ge Li Shi*

Kim, Jongseok

In Chinese contemporary literary circles, Wang Gang is a writer with a unique modifier of “the Xinjiang writer” and “the Xinjiang complex”, whose novels have received positive recognition from mainstream literary and critics.

Wang Gang's novel *Ying Ge Li Shi*(=*English*), published in 2010, is a novel that inspired the world to recognize the name of Wang Gang. This novel has received many awards. such as, “novel double crown Award for the year” of *DangDai* in 2004, “The book of Ten Big Book” of *Chinese times* in 2006 and nominated for the “Mao Dun prize for literature” in 2008.

This paper made Wang Gang's novel *Ying Ge Li Shi* the subject of analysis. This novel is a typical growth story about a boy's self-identity. The novel is based on his experience growing up in the Xinjiang region in northwestern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As “a writer born in the 1960s”, his literary epic is differentiated from the writers' group of the new period in terms of experience and in historical memory. He used a semi-autobiographical narrative pattern using the boy's narrative view. In the novel, he expressed his pursuit of humanity by talking about the process of spiritual growth from a boy's point of view rather than from a huge narrative style and political point of view.

First, analyzed the growth(=initiation) of the main character, Liu Ai. As a

growth novel, *Ying Ge Li Shi* revealed to us Liu Ai's growth in the rational enlightenment of Wang Yajun, a "positive Guidance". His growth, along with Wang Yajun's guide, may be defined as the type of growth in self-discovery. Second, this paper made an analysis of the figures of intellectuals during special era, called the Cultural Revolution.

Wang Gang expressed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of the "1960s Born Writers' Group", which focuses on the growth of "person" and "life", away from the nationalistic limitations and "huge narrative" seen in existing literary epics through *Ying Ge Li Shi*. In addition, by successfully creating the Guidance figure of growth lacking in the literary epic of "1960s Born Writers' Group", the novel presented new possibilities for growth, successfully depicting a true "role model" that deviated from the typical Chinese growth novel through traditional ideological discipline.

Key words: Wang Gang, *Ying Ge Li Shi*(=*English*), growth novel, Intellectuals, the Cultural Revolution, self-discovery, initi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10. 31	2019. 11. 11	2019. 11. 19	2019. 11. 26	2019. 12. 31